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9호 【루계 제26023호】 주체107(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8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완공된 해상철길다리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석전만을 횡단하는 해상철길다리를 완공한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도 조선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과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포르뚜갈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보도망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건설장전경을 바라보시며 불과 몇개월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해제꼈다고 치하하시며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규모와 건축정형, 자재와 설비보장대책 등 건설전반실태를 료해하시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론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조선식의 해안도시로 훌륭히 꾸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결심이라고 하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일본의 NHK방송, 베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신문 《자브뜨라》, 스루뜨니크방송, 인터네트신문 렌따.루, 인터네트통신 가제따.루, 인터네트잡지 《렘위위》를 비롯한 로씨야의 40여개 언론들,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인족어방송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신 소식,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솔란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 진행

【도꾜 5월 27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 주체혁명위업수행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국면이 열리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가 26일과 27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태양상앞에는 꽃바구니들이 놓여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조국의 강성번영과 통일의 새시대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24전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새 전성기를 앞당기는 애족애국운동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구호들이 모셔져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조선회관모형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 배익주, 배진구, 강추련부의장들,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들,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고문,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을 남승우부의장이 랑독하였다.

축하문랑독이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예지와 명철무쌍한 령도예술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전체대회에 친히 축하문을 보내주시여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과 재일동포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우렁찬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에서는 자격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대회의안으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에 제출하는 총련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에 대하여》, 《재정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의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2면으로 계속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특출한 령도로 전세계를 경탄시키는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되고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력사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들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를 가지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의 가슴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가지게 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가진 영광과 충정의 대회,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는 단결과 승리의 대회로 장식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벅차오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 대범한 결단으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제3차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시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심으로써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29일만에 또다시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여 온 겨레에게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여 선대수령들께서 이룩해놓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력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조미관계의 개선을 명철무쌍한 외교전술로 과감하게 주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시며 21세기를 이끄시는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세기적인 대사변을 마련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앞으로 친히 강령적인 축하문을 보내주시는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주시였으니 한없이 인자하신 어버이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우리의 영광과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문은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음을 확증해주는 향도의 해발이며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는 불멸의 기치입니다.

우리들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강인단대한 기상으로 세계를 굽어보시며 천재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력사의 장엄한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상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에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 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과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을 비롯한 강령적말씀으로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지난 4년간의 투쟁과 전진의 나날을 긍지높이 총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오늘의 격동적이며 전환적인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족애국의 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데서 나서는 사업방향과 주력과업을 토의결정하였습니다.

총련은 제24차 전체대회를 새로운 리정표로 하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새겨진 애족애국의 성스러운 행로우에 상승발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력사를 자랑차게 새겨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총련을 존엄높은 공화국의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반석같이 다지겠습니다.

우리들은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총련의 모든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이 세상 끝까지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애족애국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본부와 지부, 분회와 단체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애족애국의 성새, 믿음직한 성돌로 튼튼히 다지며 동포되찾기운동을 더욱 왕성히 벌려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을 보다 광범히 묶어세우겠습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을 조직건설과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고 우대교육사업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민족교육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총련은 새 세대 단체 일군들과 동포청년들을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을 떠밀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로 육성하는데 더 큰 힘을 돌리며 민족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을 크게 앙양시킴으로써 동포사회가 민족정서와 애족애국열의로 끓어번지도록 하겠습니다.

총련은 일본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철회하고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걷어치우도록 강하게 투쟁하며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들에 대한 봉사복지활동을 힘있게 벌리겠습니다.

총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통이 크게 벌리며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기운차게 조직전개하여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데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수행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정치발전의 중심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과 조국의 찬란한 현실을 널리 알리는 대외선전전, 여론전을 다양하게 전개하며 조일평양선언에 따른 조일국교정상화실현을 위한 대외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리겠습니다.

총련은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산악같이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동포들의 애국지성을 불러일으켜 조국의 경제강국건설에 뚜렷한 흔적을 새기겠습니다.

본대회에서 선출된 총련의 중앙기관 역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운명을 함께 할 충정심과 깨끗한 량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게 다져 자신들이 맡은 영예로운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본대회의 대의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축하문을 구현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결정집행에 헌신분투하여 기어이 커다란 사업실적을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우리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은 온 겨레의 최상최대의 념원입니다.

우리들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경모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와 영원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무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

주체107(2018)년 5월 27일 일본 도꾜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평양국제비행장지구가 날을 따라 변모된다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년간 평양국제비행장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여러 려들에 근 2 000세대의 살림집들이 시대적미감에 맞게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였다. 이와 함께 하부망공사와 수십동의 공공건물들의 건축공사가 추진되여 눈에 띄는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근 1 000정보의 토지와 10여㎞구간의 하천도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정리되고 수십정보의 산림이 조성되여 이 지구가 몰라보게 전변되고있다.

이 성과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건설현장지휘부의 일군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이 공사는 1단계로 1만여세대의 살림집들과 백수십동의 공공건물, 수백동의 생산건물을 신설 및 개건하고 2 000여정보의 토지와 수십㎞구간의 하천을 정리하며 하부망공사, 많은 면적의 산림조성사업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방대한 건설과제이다.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맞게 건설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각 시공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각 시공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이 사업을 틀어쥐고 적극 밀어주어 맡겨진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한편 건설현장지휘부에서는 자체의 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많은 수지창과 출입문, 기와와 흙관을 생산보장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여러 분지휘부들에서는 건설장들에 전투속보판과 경쟁도표들을 게시하고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흙경화제를 도입하여 생산한 블로크를 건설에 리용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에 맡겨진 공사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많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일별, 주별, 월별전투목표를 빈틈없이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한층의 건물골조를 형성하고 한칸의 살림방을 꾸려도 친형육들이 생활할 보금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관점과 립장밑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대성지도국, 보향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달려나온 전투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소층살림집들에 대한 골조공사와 지붕공사를 끝내였다. 련이어 내외부미장공사에 진입한 이들은 즐기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계획수행에서 앞장서고있다.

천명알론봉사렴려, 은하지도국, 경흥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투원들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맡겨진 공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체신성, 국토환경보호성, 체육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공사장에 자주 나와 필요되는 자재문제, 건설자들의 생활조건보장문제를 일일이 료해하고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락원지도국, 금강지도국, 봉화지도국, 지방공업성의 전투원들도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시공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지키면서 살림집건설과 공공건물건설에서 뚜렷한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는데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공사지휘를 맡은 평양시 일군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 시공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여러가지 새로운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보장해나가고있다.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와 평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토지정리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면서 여러 공사과제수행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공사장마다에서는 현재 천수백세대분에 해당하는 살림집들의 골조공사가 다그쳐지고있으며 지붕공사, 내외부미장공사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명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떠받들려 평양국제비행장지구의 면모는 날이 갈수록 일신되여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충성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모내기전투에서 련일 혁신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의 협동벌들에서 모내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모내기를 적기에 집적으로 하는데 알곡증산의 돌파구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시, 군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어김없이 내밀도록 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중순 염주군 남압협동농장에서 모내기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시, 군들에서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기술적지도를 잘해나가고있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양수동력설비들을 만가동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논두렁깎기와 씨레치기를 앞세우면서 영농공정별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곽산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전투에서 앞서나가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력량을 집중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로하협동농장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농장의 일군들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이 발양되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60%의 모내기를 해제낀 기세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남단, 군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도 물보장을 선행시키고 력량을 집중하여 포전마다에 푸른 주단을 펼쳐가고있다.

정주시, 신의주시, 녕변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력량을 집중하여 모내기실적을 올리고있다.

염주, 룡천군에서도 모내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운전, 박천, 선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적기에 모내기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질적으로 하고있다.

북과기자 송창윤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안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18일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잠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관리국당조직에서는 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관리국참모부에서는 전투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과학기술을 앞세워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직접 현지에 나가 자동차를 타고 수송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물동수송임무를 맡고있는 관리국아래 기동려단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무속클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증송의 동음을 높이 울려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청진뻐스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영관리를 과학적으로 짜고들고 불꽃튀는 생산전투를 벌려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먼거리려객차사업소를 비롯한 산하단위들에서도 전화의 수송전사들처럼 운행길을 달리고달려 관리국적인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기여하였다.

관리국에서는 국아래 륙운설계연구소에 력량을 집중하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따라세워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현실에 적극 도입되도록 하였다.

관리국에서는 평양영예군인자동차부속품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애국심을 적극 불러일으켜 지난해부터 생산하고있던 연유절약기보다 더 효률적인 연유절약기를 창안제작하고 관리국아래단위 100여대의 화물자동차들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상반년계획수행기간에만도 많은 연유가 절약되게 하였다.

일터마다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관리국아래 39개 단위들에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본사기자 리경일

사회주의대지에 높이 울리는 사랑의 메아리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기개인양 사회주의협동벌마다 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드넓은 포전들을 기운차게 누벼가는 트락또르들이며 벌마다 푸른 주단을 끌었이 펼쳐가는 모내는기계들의 모습을 대하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는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농촌기계화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주체82(1993)년 4월 어느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만든 농기계들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몸소 어느 한 농장으로 향하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전날에 내린 비로 농장길이 험하니 현지지도를 며칠간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이 질어서 험하다는데 포전길이라는것이 그렇지 포장도로와 같겠는가고 하시며 길을 재촉하시였다. 이렇게 험한 길을 헤치시며 찾으신 농장이였다.

먼저 모내는기계앞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서 기계를 돌려보라고 이르시였다.

빈포기가 나지 않는가, 포기당 대수가 제대로 보장되는가 하는것을 세심히 살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전끝까지 가시여 모가 아주 잘 꽂힌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농기계들을 보아주시면서 구조와 작용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논두렁짓는기계를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사에서 제일 힘든 일은 논두렁짓는 것인데 이제는 농장원들이 그 일에서 해방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대없이 기뻐하시였다.

이날뿐이 아니였다.

어느날엔가는 대회에 참가한 한 트락또르운전수의 미숙한 토론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영웅이라 값높이 일러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농장의 정범한 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동무들은 나를 돕고 나는 동무들을 도와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어버이수령님,

인민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을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로 중시하시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모내는기계와 탈곡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도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드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길에 새기신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문제를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농촌의 긴장한 로력문제를 해결할뿐아니라 농업생산을 현대적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제때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중시하신 위대한 장군님,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들판에 서있는 트락또르를 보시고 차를 세우시였다.

기름묻은 트락또르운전수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덤비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하시며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여 그의 일손을 도와주시였다.

드디어 트락또르가 달릴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도 송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는 운전수의 옷에 묻은 먼지도 털어주시며 농촌기계화초병의 임무를 다하자면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는것이라고 일깨워주신 우리 장군님,

아무리 갈길이 바빠도 동무가 작업을 하는것을 한번 보고 가겠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점도록 그의 작업모습도 보아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제는 트락또르의 카동률을 높이는것이라고, 그러자면 트락또르의 기술관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것은 트락또르의 수리정비사업을 제때에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꼭 농촌기계화의 선구자가 되라고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정녕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히 새겨져있다.

토지정리가 진행되고있는 드넓은 논벌을 바라보시며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여야 토지정리를 한 보람도 있고 농업생산도 늘일수 있다고 간곡히 교시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런 숭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어느 한 농장의 탈곡장에 가시여 농장원의 소박한 의견도 신중히 들어주시며 영농작업의 종합적기계화에서 나서는 방도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신 그날의 사연은 오늘도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왕 기계화할바에는 좀더 크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일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범한 농장원의 소박한 의견을 들어주시며 낟알털기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칠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종합탈곡기를 자체로 만드는것과 함께 앞으로 농민들이 종합탈곡기와 같은 현대적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게 하자면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방도에 대해서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더 헐하고 흥겹게 일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그리도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다.

언젠가는 우리 당의 정책은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농사를 헐하고 흥겹게 짓도록 하자는것이라고 하시였고 어느해인가는 한 농장을 찾으시여 한해농사에서 모내기가 그중 힘든 영농공정인데 농장에서 모내기를 끝냈으니 한시름 놓게 되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렇듯 사회주의대지에 울리는 기계화의 동음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치신 끝없는 헌신의 력사를 전하는 사랑의 메아리인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여러해전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념원이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신것이 아니던가.

이런 고결한 충정으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농기계생산기지들이 그윽히 마련되어있고 우리 로동계급에게 여러가지 농기계와 부속품들을 만들어본 경험도 있는 조건에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보장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시던 그날 우리 원수님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농기계부품에서 새로 제작한 각종 농기계들을 보시며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주체적립장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완성한 트락또르와 농기계들은 농업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대신하는것은 물론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사일을 최적기에 질적으로 하여 알곡증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기계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현대적인 트락또르와 농기계들을 계렬생산하게 되면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우리가 만든 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던 세형의 트락또르와 화물자동차전출식,

사회주의협동전야로 달려가는 트락또르행렬의 장관을 보면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농업근로자들에게 최상의 로동조건을 마련해주시려 한평생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 사회주의대지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대지에는 뜻깊은 메아리, 기계화의 동음이 더욱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황금벌의 력사를 길이 빛내여갈 드높은 열의로 떨쳐나선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뜻깊은 올해의 농업전선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개가가 높이 울릴것이다.

오 영 심

사연깊은 저택시험포전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저택의 정원에 시험포전까지 꾸려놓으시고 농작물을 손수 가꾸신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시며 온 나라 농사일을 돌보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오늘도 뜨거운 추억속에 어려여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수십년전의 어느날이였다. 평양시 교외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곳 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벼농사문제를 두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해박한 과학지식과 귀중한 체험이 담겨진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감격과 흥분을 걷잡지 못하였다. 벼농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 어느 농학사전보다 더 실감있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었던것이다.

깊이 심취되어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묻득 자, 내 차에 다 타시오, 우리 집에 가서 직접 봅시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이끄시였다.

너무도 크나큰 감격과 행복감에 휩싸여 일군들은 어느새 우리 수령님의 저택에 도착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 큰 감동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걸음을 옮기던 그들이 멎어선 곳은 자그마한 논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저택정원에서 벼가 자라고있다니?!…

이런 놀라움으로 자세히 보니 줄마다 서로 다른 벼종자를 심었는데 논판에 몰이 직접 흘러들게 된것으로 보아 어버이수령님께서 산골벼농사법을 손수 시험해보고계신다는것을 대뜸 알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왜 자기들을 저택정원으로 데리고오시였는지 비로소 사연을 알게 된 일군들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가 어려와 가슴뜨거워올랐다. 그럴수록 나라의 쌀독을 책임지고있는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나라일로 그토록 분망하신 우리 수령님께 이런 부담까지 끼쳐드리게 되었다는 자책감으로 얼굴을 들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자, 보시오, 이것은 서로 다른 벼종자들입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모를 심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비료를 주었습니다라고 하시며 벼포기가 자라는 줄을 한줄한줄 짚어보시였다. 그러시면서 포전에서 자라는 벼종자들의 특성과 그 재배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눈에 띄게 알이 큰 벼를 가려키시며 그 모의 특징과 좋은 점, 기르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다음 가을에 수확하면 그 종자를 모두 작업반에 보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저택시험포전에서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우량품종의 종자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는가.

인민들에게 흰쌀밥을 풍족히 먹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웅심깊은 사랑과 은정이 가슴가득 안겨와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진정 저택정원에 화려한 관상용화초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험포전을 꾸리시고 어려가지 작물들을 직접 가꾸시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 같으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가 또 어디에 있었던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바치신 크나큰 로고와 애국의 땀방울들이 그대로 이 나라 포전들에서 풍성한 열매로 알알이 무르익었음을 인민이여 삼가 잊지 말고 숭고한 그 뜻을 길이길이 받들어가자.

본사기자 백 영 미

김 영 남 동 지 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바 꾸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일함 알리예브각하

나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친선과 협조의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5월 28일 평 양

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

박사 물라투 테쇼메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5월 28일 평 양

최 룡 해 동 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덕천시일반식료공장 현지료해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덕천시일반식료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최룡해동지는 먼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헌신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련합기업소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화물자동차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는데서 기업소당위원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였으며 자동차생산목표를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이 토의되였다.

또한 새로 건설하고있는 종합목장을 훌륭하게 완공하여 후방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줄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최룡해동지는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덕천시일반식료공장을 돌아보면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따라배워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공장초급당위원회가 당세포사업을 잘 도와주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룡해동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현지료해

과학기술을 습득하는것은 일군들의 중요한 혁명임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지니고 대중을 힘있게 선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일군들이 지녀야 할 실력에는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는것,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것,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체득하는것을 비롯하여 여러 내용이 속한다. 여기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의 사상과 의도,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이 기본이고 첫째가는 실력이라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는것은 필수적인 제2의 실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것이 왜 일군들의 중요한 혁명임무로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지도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기때문이다.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오늘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자면 그 누구보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지금 일군들이 정치사상적수준과 함께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사업을 옳바로 지도할수 없다.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자체가 과학기술의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과학기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기관차직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것이 과학기술의 힘이다. 일군들이 맡은 분야의 과학기술에 정통하고 과학기술의 위력을 적극 활용할줄 알아야 현시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나선 정책적과업관철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실적을 올릴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문외한이 되면 어려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우는소리나 하면서 앉아몽개고 대중속에서 제기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도 판별할줄 모르며 어떤 일이나 특특한 방법론과 과학적타산이 없이 망망 내밀게 된다.

지금은 인해전술이나 재래식방법으로 일할 때가 아니다. 일군들이 자기 분야의 과학기술에 밝을때 당의 의도에 맞게 단위사업을 옳바로 지도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은 올경춘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장의 사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는 당일군이지만 학위를 소유하고 2.16과학기술상을 비롯하여 특허와 발명증서, 수십건의 새 기술도입증과 창의고안증서를 받은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가이다. 그는 련합기업소안에 과학중시기풍, 과학기술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자신부터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해 앉으나서나 사색하고 새로운것을 끊임없이 착상해냈으며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속에서 제기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였다. 또한 일군들속에서 자신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무단히 높이고 기술혁신안을 자기 단위에 먼저 받아들이기 위한 경쟁바람을 일구었다. 그 나날 련합기업소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콩크리트침목생산공정을 비롯한 자력갱생기지들을 꾸려놓았으며 과학기술연구성과들에 의거하여 굴진을 앞세울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은 경제일군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당일군들도 현대과학기술을 아는 박식하고 유능한 일군으로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때야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도 원만히 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자기 단위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비약하는 힘있고 전망성있는 집단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은 매개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자기 단위를 당이 맡겨준 그 어떤 과제도 훌륭히 수행하는 실력있고 전투력있는 집단, 자강력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발전전망이 큰 전도양양한 단위로 꾸려나갈것을 바라고있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 힘있고 전망성있는 단위는 곧 자체의 과학기술력이 높은 집단이다. 이런 단위로 꾸리자면 무엇보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 일군, 인재형의 일군이 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위력을 잘 알고 과학기술적자질이 높은 일군들은 언제나 인재를 중시하고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여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그들에게 의거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에 늘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것도, 가치있는 발명과 연구성과들, 세계적인 선진과학기술에 민감하고 그것을 지체없이 도입하여 단위사업에서 비약적혁신을 이룩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것도 과학기술에 밝은 일군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사업기풍이다.

자기 단위를 힘있고 전망성있는 단위로 만들자면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모든 종업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들로 키워야 한다. 일군들부터 과학기술수준이 높아야 아래사람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나갈수 있으며 집단안에 과학기술학습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할수 있다.

순천시음료공장은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지만 배울것이 많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많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명증서와 창의고안증서, 과학기술성과등록증, 과학기술성과도입증들을 받았다. 2017년 한해에만도 40여건의 과학기술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한다. 이들이 완성한 전력생산체계는 적은 량의 석탄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이것을 전국의 지방산업공장들에 도입입반화하면 막대한 리익을 얻을수 있다. 지난 시기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공장이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고있는것은 공장책임일군들의 투철한 과학중시립장, 높은 과학기술적자질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일군들이 박식가, 실력가이면 아래사람들도 인재형의 근로자들로 자라나며 이런 실력가들의 집단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기마련이다.

모든 일군들은 자신을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풍부한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애써 노력함으로써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일자리를 내고 실적을 올리는 유능한 지휘성원,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하여 혼적을 남기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할것이다.

김 경 철

1 면 에 서 계 속

대회에서는 허종만의장이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보고를 하였다.

첫째 의안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총화기간 총련결성이래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광범한 동포들을 교양정취함으로써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성새, 믿음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진 귀중한 사업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은**시대, 조국의 강성번영과 통일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비롯한 조국의 각 기관들과 일군들 그리고 해외교포단체들, 외국의 친선단체들, 남조선과 여러 나라의 인사들이 보내온 축전들과 축하인사록화편집물, 축하편지가 소개되였다.

대회에서는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 련대성 및 친선단체 인사들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대표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여원건형위원회,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보고를 대회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안인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 보고가 있은 다음 심의결과들이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허종만동지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남승우동지, 조일연동지, 박구호동지, 강추현동지를 부의장으로, 배진구동지를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으로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허종만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강령적축하문을 친히 보내주신 숭고한 뜻을 가슴가슴에 깊이 새기고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과 기쁨의 보고를 삼가 드릴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24기 제1차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였으며 총련중앙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대회기간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 그리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해 떨쳐나선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시고 총련 앞으로!》와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4차 전체대회에서 한 허종만의장의 보고

대의원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체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현명한 령도로 조국과 민족, 재일동포들의 운명에서 중대한 급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혁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내외에 자랑차게 선언하시고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경제강국건설에 총매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밝혀주시고 지난 4월 27일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남조선 문재인대통령과의 뜻깊은 상봉을 이룩하시고 력사적인 회담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심으로써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와 국제정치정세가 전례없이 격변하는 가운데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이라는 세기적인 정치사변이 전세계의 관심속에서 태동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본대회에 친히 강령적인 축하문을 보내주시는 각별한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축하문은 주체위업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쳐나가는 격동의 시기에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주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상승발전에로 이끌어주는 불멸의 기치이며 필승의 보검입니다.

저는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대의원들과 전체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을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어 민족만대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시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각별한 믿음과 혈연의 정을 부어주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희세의 위인이시며 절세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상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참된 어머니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가진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가지는 영광과 충정의 대회이며 주체위업이 최후승리를 향한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거창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는 단결과 승리의 대회입니다.

본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격동적이며 전환적인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족애국의 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데서 나서는 사업방향과 주력과업을 토의결정하게 됩니다.

1. 총련 제23기 사업의 총화에 대하여

대의원여러분!

총화기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특출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금부상하고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였으며 주체위업이 최후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는 직선주로에 들어선 력사적기간이였습니다.

총련에 있어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되여 우리의 자랑이며 긍지인 총련의 본태를 더욱 찬연히 빛내이며 새로운 전성기에로 향한 애족애국의 진군걸음을 힘차게 줄달음쳐온 잊지 못할 나날이였습니다.

총화기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축하문과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받아안은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총련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사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축전과 축하문, 친필서한과 강령적말씀을 거듭 안겨주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창립 60돐에 즈음하여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기념중앙대회에 축전을 보내주시는 각별한 배려를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불러주시여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한 조청일군들과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에 참가한 총련의 대표단성원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함께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련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표창장, 김정일청년영예상, 공화국로력영웅칭호,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는 커다란 정치적신임과 특혜를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을 담아 해마다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며 조선대학교 리사장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여 민족교육과 녀성운동을 비롯한 총련의 애족애국운동을 친어버이 사랑으로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총화기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깡그리 빼앗으려고 사상최대의 제재봉쇄책동을 감행하였으며 총련도 결성이래 일찌기 없었던 존엄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일본당국은 공화국에 대한 압력일변도정책의 일환으로 총련에 대하여 불법적인 제재와 전대미문의 탄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렸으며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 등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조선인풍조가 만연하는 속에서 우익깡패들은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파쑈적인 총격테로만행까지 감행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하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는 속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련대성단체들에서 일본당국의 무당한 처사를 폭로단죄하는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도록 하시였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찬란한 미래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총련조직을 끝내 지켜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왔습니다.

1) 총화기간 총련은 그토록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으로서의 애족애국의 본태를 빛내였습니다.

총화기간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5돐을 맞이한 뜻깊은 2017년을 위인칭송의 혜로 빛나게 장식한것을 비롯하여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영원한 삶의 은인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들을 백옥같은 충정심을 안고 조직진행하였습니다.

총련은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각급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선전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흠모심과 천출위인상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련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창조직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총화기간에 혁신운동과 지부경쟁, 이를 심화하기 위한 집중전과 돌파전을 련속적으로 벌림으로써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거창조직들을 애족애국의 성돌로 다지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총련지부가 지역적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되였으며 총련과 녀성동맹의 분회들에서 새 전성기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16(새 전성기 2차대회)을 위대한 김정은시대 새 모습의 분회를 꾸려나가는 도약의 계기로 장식하였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동포들과의 혼연일체를 이루는데 가장 큰 힘을 돌렸으며 적아간의 대결이 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모든 일군들이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광범한 동포군중을 조국과 총련조직두리에 굳게 묶어세웠습니다.

2) 총화기간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70돐과 조선대학교창립 60돐을 계기로 학생수를 늘이는 사업과 학교지원운동을 비롯하여 민족교육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조직적, 전동포적으로 조직진행하였습니다.

각급 학교들에서 교육의 ICT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초급부 고학년의 수업들에 전자교과서를 도입하고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한것은 민족교육사업에서 이룩한 특기할 성과입니다.

일본당국이 우리 민족교육을 말살하려고 교육보조금지급을 부당하게 정지시키는 등 온갖 차별책동을 감행해나선 엄혹한 상황에서도 도꾜조선제6초급학교와 시즈오까조선초중급학교가 새 교사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히가시오사까조선초급학교, 니시고베조선초급학교와 많은 학교들에서 내진대책을 빈틈없이 세운것을 비롯하여 학교개건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동포들의 불같은 애족애국의 마음과 무궁무진한 힘의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새 세대 일군들에 대한 교양육성사업에 응당한 힘을 넣으면서 어려운 경제적환경속에서도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하여 새 세대 일군들이 총련의 바통, 애족애국의 계주봉을 믿음직하게 이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조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에 사업실적으로 보답할 열정에 넘쳐 동포청년들속에 깊이 들어가 지부와 반조직들을 한층 활성화하였으며 류학동은 지방본부와 지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우리 학생되찾기운동을 왕성히 벌렸습니다.

청상회는 《우리 민족포럼》과 대중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으며 청상회활동을 거친 새 세대 열성자들은 총련지부와 분회위원, 상공회와 각급 학교교육회 역원으로 활약하고있습니다.

총화기간 상공회는 동포상공인들의 경영지원체계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상기업활동을 성심성의로 방조하였으며 상공회우수상장위원동을 힘있게 벌려 역원 및 회원대렬을 확대하였습니다.

녀성동맹은 결성 70돐을 중앙과 본부, 지부와 분회들에서 성대히 기념하였으며 새 세대들을 비롯한 광범한 동포녀성들을 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워 민족교육고수투쟁과 아이키우기지원활동에서 귀중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총화기간 본부와 지부, 단체들은 반동들에 의한 조선인배타의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도 동포축전과 예술공연,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들을 수많이 조직하였으며 상부상조의 미풍을 발휘하여 동포봉사복지사업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광범한 동포들과 학생들은 민족교육권옹호투쟁을 비롯하여 일본당국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단죄규탄하는 항의집회와 요청활동을 각지에서 매월, 매주 중단없이 드세차게 벌렸습니다.

3) 총화기간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3대애국과업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민족단합사업을 꾸준히 벌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 남, 해외 련대련합운동을 앙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총련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려 중앙과 지방에서 련대성단체 및 친조단체들과의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역밀착의 대외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총련은 공화국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상최대의 경제제재와 총련조직에 대한 탄압책동이 악랄해지는 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의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특색있게 벌렸습니다.

총련이 총화기간에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하무비의 위대성에 최후승리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바친 고귀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나는 총련결성이래 가장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굴함없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애족애국운동에 헌신분투한 동포들과 일군들의 재끗한 량심과 고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본대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대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번영과 총련의 애족애국위업을 위해 한생을 바치다가 총화기간에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난 총련중앙위원을 비롯한 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 재일동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2.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성스러운 행로우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울데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뜻깊은 올해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본태를 다시금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행로우에 반드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의원여러분!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서 창건 7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해이며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환적리정표가 마련된 조국청사에 특기할 해입니다.

올해는 또한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룩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세계사적인 대사변의 해입니다.

이와 같은 뜻깊은 해에 가진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는 결성후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사랑속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성스러운 행로우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는 력사적인 대회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선전환방침과 총련의 결성으로 그 시원이 열리고 독창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리론으로 전인미답의 길이 승리적으로 개척되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떨치게 해주신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로 모시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다는것은 최후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는 주체위업의 새시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장엄한 새 출발을 시작한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제정치를 파감하게 주도하시며 련속적인 중국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놓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미국과의 외교전을 원숙하게 령도하시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급전환시키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분렬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여있는 판문점의 분리선을 넘으시여 남조선 문재인대통령과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이룩하심으로써 북과 남은 서로 갈라져살수 없는 한혈육이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온갖 도전을 손잡고 함께 헤쳐나갈 때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와 온 겨레의 통일열망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시였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숭고한 민족애와 대범한 용단으로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펼쳐주시였으며 력사의 방향타를 틀어쥐고 세계정치흐름을 확신성있게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칭송과 흠모로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높으신 권위는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이고 영광이며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위용떨치는 주체의 조국은 재일동포들의 행복이고 후대들의 창창한 미래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축하문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위대한 새시대가 도래하고있으며 재일동포들의 운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불멸의 기치입니다.

총련 제24기 사업의 총적방향은 5천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번영의 새 전기가 펼쳐지는 력사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족애국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가는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태여나 성장한 총련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공고히 다짐으로써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서의 영예를 자랑차게 빛내여나갈것입니다.

총련은 일본당국으로 하여금 력사발전의 도도한 흐름에 맞게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시정하고 조일평양선언과 스톡홀름합의를 성실하게 리행하며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그 일환으로 감행해온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본당국에 의해 빼앗겼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들을 찾아오는 투쟁에서 총련은 일본당국으로 하여금

기계화비중을 높여 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닥닥 끝내자

전투성과를 담보하는 혁신적인 일본새

증산군일군들의 사업에서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열의로 증산군안의 협동벌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뼈속깊이 새기고 모내기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씨레치기를 비롯한 선행공정들이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쭉쭉 추진되고 실하게 키운 벼모들이 지장없이 보장되는 속에 각 농장들에서의 모내기실적은 시작부터 부쩍 오르고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것은 전야마다에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는 군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에 서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군에서는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지난해보다 늦게 시작하면서도 종전과 같은 때에 결속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이런 조건에 맞게 군일군들은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을 모내기전투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

이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은 농기계들의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군에는 많은 면적의 간석지논들이 있다. 이런 포전들의 토양은 류달리 점성이 크다. 따라서 씨레치기와 같은 포전작업시 농기계들은 부하가 많이 걸려 자칫하면 고장이 날수 있다. 만일 그때 필요한 부속품이 없어 농기계들이 가동을 멈춘다면 선행공정에서부터 빈틈이 생겨 모내기의 최적기보장에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제때에 포착한 군일군들은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이자 모내기실적이라는 립장에서 예비부속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소재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짧은 기간에 확보하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야 군농기계작업소에 그믐히 갖추어놓은 물질기술적토대를 리용하여 부속품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었다. 더우기 이 사업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모두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군적으로 유휴자재를 빠짐없이 모아들여 부속품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즉시 실천으로 이어졌다.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유휴자재가 확보되고 부속품생산실적이 올라갔다. 특히 군에 파견된 당지도소조 성원은 수백리길을 달려가 중요부속품들을 해결하여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의 실천적모범은 군일군들을 분발시켰다. 일군들무더기에게를 들이밀고 부속품문제해결에서 제일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나서며 알장섰다. 부속품생산투쟁에 떨쳐나선 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높은 책임감을 안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결과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군적으로 10여종에 수천점의 부속품들이 마련되였다. 이것은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한 또 하나의 귀중한 담보로 되였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은 언제나 유능한 작전가, 헌신적인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시작과 함께 군에서는 포전에서의 이동수리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였다. 물론 이 사업은 지난 시기에도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종전과 다른 점이 있다. 농기계부문만이 아닌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전투승리의 전격로를 열어제끼는 작전가, 실천가라는 립장에서 여기에 적극 협력해나서도록 한것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에게 해당 지역들을 분담시킨 다음 그들이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자그마한 부족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옳게 이끌어나가게 하였다. 또한 각 농장들을 담당하고 나간 일군들이 그곳에서의 영농작업수행과 함께 이동수리활동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을 위한 군책임일군들의 면밀한 작전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동수리조들의 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도 응당한 주목을 돌리였다. 이때 해당 농장의 농기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이미 진행하였던 성원들에게 그것을 다시 맡겨주는 원칙에서 이동수리조를 지구별, 방향별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작업공구와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추어주도록 하여 포전에서의 이동수리시간을 최대로 단축할수 있게 하였다. 만일 현장에서의 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들은 해당 농장들을 담당한 일군들이 책임지고 군농기계작업소에 도착시켜 그날중으로 고장을 퇴치한 다음 전투장에 진출시키도록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의 이런 빈틈없는 조직사업은 응당한 결실을 안아왔다.

들끓는 현장에 전투과지를 튼튼히 정한 일군들 누구나 높은 책임감을 안고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대오를 이끄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갔다. 군농기계작업소와 각 농장 기계화작업반의 성원들로 조직된 이동수리조들의 활동도 맹렬하게 벌어졌다. 모든 농장들에서의 농기계가동률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결과 시기성을 다투는 모내기전투를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힘있게 내밀수 있게 되였다.

이룩한 성과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밑천이며 도약대이다.

농기계들의 가동률이 높아갈수록 군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모내기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농기계들의 작업이 진행되는 포전들을 빠짐없이 밟으며 이동수리조원들에게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하고 그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제때에 평가해주었다. 이와 함께 이동수리조의 하루작업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은 즉시에 풀어주었다. 일군들이 땀흘리며 뛴것만큼 농기계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모내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여 모내기전투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해가고있는 군일군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김 성 일

황주군에서 가동률을 높이는데서 중시한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시설들에 대한 보관과 관리를 잘하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내기전투의 최적기보장문제를 놓고 그와 관련한 작전안을 다시금 따져보던 황주군책임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모내는기계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것이다. 물론 해마다 모내는기계들을 수리정비하여 출동시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일단 모내기가 시작되면 리용률은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하군 하였다.

일군들은 그 원인의 하나를 다름아닌 자신들의 구태의연한 사업방법에서 찾았다.

지난 시기 각 농장들에서는 군농기계작업소에 모내는기계를 싣고와서 수리정비를 하군 하였다. 그리고 출동시도 군의 어느 한 장소에 모내는기계들을 집결시켜놓고 진행하였다. 그런데 따져놓고보면 이런 고정격식화된 방법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수리정비한 모내는기계들을 해당 농장들에로 운반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결국 다시 품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였고 포전작업에도 후과가 미치여 모내는기계의 가동보장에 지장을 주었다.

군일군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도를 찾기 위해 지혜를 합쳤다. 그 과정에 모내는기계의 리용과 수리정비에서 제기되던 여러가지 난문제들을 풀수 있는 묘안을 찾게 되였다.

그중의 하나가 이동수리조들의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군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군안의 여러 단위들의 기계속내에 밝은 사람들로 이동수리조의 력량편성을 새롭게 다시 하였다.

이런 조직사업은 실천에서 큰 몫을 내였다.

포전에서의 수리대책을 제때에 세우고 모내는기계운반에 들인 로력과 언유를 절약할수 있게 한것도 좋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것은 해당 농장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내는기계를 신속히 개조하여 작업능률을 부쩌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이였다.

사실 포전마다 지력상태가 각이한 조건에서 평당 포기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모내기를 할수는 없었다. 이것을 극복하자면 해당 논벼재배방법에 따르는 평당 포기수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모내는기계를 개조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제를 군농기계작업소의 력량만으로 수행하자면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린다. 이동수리조들까지 이 사업에 인입시킨다면 그만큼 시간도 단축하고 해당 농장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더 잘 해제낄수 있었다.

군일군들이 이동수리조의 새로운 력량편성으로 노린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모내는기계의 리용률을 높여 모내기의 최적기보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려는 군일군들의 작전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치차와 베아링을 비롯하여 이동수리에 필요한 각종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적극 발벗고나섰다. 군책임일군들부터 앞채를 섰다.

그들의 남다른 이신작칙은 열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그들을 따라나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예비부속품들이 마련될수 있었다. 이동수리조들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니 각 농장들에서의 모내는기계개조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이룩될수 있었다.

모내는기계의 리용률문제에 각별한 힘을 넣어 모내기의 최적기보장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긍정적이다.

본사기자 리 충 임

자체로 만든 농기구가 은을 낸다

영광군 기상협동농장에서

영광군 기상협동농장에서 모내기전투시작부터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그 어느 포전에 가보아도 모내기전투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같은 열의를 엿볼수 있다.

주목을 끄는것은 잎자르기를 진행하여 실해진 벼모와 앞선 영농방법을 도입할수 있도록 일매지게 지어진 이랑들이다. 농장에서 자체로 만든 농기구들이 은을 내고있기때문이다.

이 농기구들이 만들어진데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사실 앞선 영농기술의 하나인 잎자르기가 좋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품이 간단치 않았다. 잎자르기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면서도 품을 적게 들이자면 결정적으로 합리적인 농기구가 있어야 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무슨 일에서나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갈수 있는 위력한 담보는 자기 힘과 기술을 믿는 강한 정신력과 배짱이다.

일군들의 사색과 실천은 이런 관점에서 진행되였다. 물론 좋은 방안이 선듯 나진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튼튼한 배심으로 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어느 한 유휴자재를 리용하여 잎자르는 농기구를 만들게 되였다. 그런데 이 농기구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의 얼굴에는 좌절감보다도 자신심이 넘쳤다.

《자기 힘이 제일이며 또 무슨 일이나 자기 힘으로 해낼수 있다는 배짱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성공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여러모로 미흡한 그 농기구를 보고 한 임복실관리위원장의 말이였다.

그후 농장에서는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잎자르는 농기구를 손색없이 완성하기 위한 사업이 긴장하게 진행되였다.

리명복리당위원장이 이 사업을 힘껏 떠밀어주었다.

일군들은 다른 단위에서 이 농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술자들과 함께 가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동작원리와 좋은 점은 무엇이고 불합리한 점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실정에 맞는 해결방도를 찾아나갔다.

그리하여 처음것보다 능률적으로 벼모잎을 자를수 있는 농기구가 완성되게 되였다.

촉전지로 동작하게 되여있는 이 농기구는 다루기가 간편하고 잎자르는 높이를 임의로 조절할수 있어 농장원들 누구나가 좋아하였다.

농장에서는 이 농기구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잎자르기를 진행하여 실한 모를 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나갔다.

논벼이랑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이랑짓는 보습을 합리적으로 개조한 사실을 놓고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를 잘 알수 있다.

사실 이전에 쓰던 이랑짓는 보습의 날사이간격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좁히자니 용접작업이 걸리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조건이 불리할수록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떨쳐나 끝내 이랑짓는 보습을 개조해내고야말았다.

이렇게 개조한 이랑짓는 보습이 큰 몫을 내고있다. 농장에서는 지금 물잡이와 모내기전 살초제치기도 선행시키면서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투철한 자력갱생정신을 지니고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과감히 전개할 때 좋은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청단군 구월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수리정비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

옹진군농기계작업소에서

기계화비중의 높이이자 알곡증산성과이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옹진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전투에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고있다. 이들의 혁신적인 투쟁기풍은 이동수리조활동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전투가 시작된 지난 어느날이였다. 군농기계작업소의 백경신지배인은 어느 한 농장일군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였다.

자기 농장에 나와 맹활약하고있는 이동수리조원들이 모내기전투과제수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는 내용이였다.

사연인즉 이동수리조원들이 어느 한 작업반포전의 씨레치기를 진행하던 뜨락또르가 뜻밖의 고장으로 멈춰서게 되자 점심식사도 미루어가며 제때에 수리해주었다는것이다. 결국 농장에서는 높이 세운 그날 계획을 지장없이 수행할수 있었다.

지배인의 마음은 기뻤다.

올해 정초부터 각종 부속품생산에 박차를 가해온 불꽃튀는 전투의 순간순간들과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나날들이 다시금 어려왔다.

이런 날들과 더불어 종업원들은 어디서 어떤 정황이 제기되어도 농기계수리를 신속히 진행할수 있게 준비되였고 그들에 대한 평가의 전화는 자주 걸려왔었다.

즐거운 마음속에 지나간 날과 달들을 돌이켜보던 지배인의 머리속에 순간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물론 빠른 시간에 고장난 뜨락또르를 수리하여 농장의 모내기일정계획수행에 이바지한것은 긍정할만 한 일이였다.

그러나 말동소리만 듣고서도 농기계들의 상태를 손금보듯 환히 알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이동수리조원들이 고장이 난 다음이 아니라 사전에 대책을 세웠더라면 뜨락또르의 가동률은 더 높아졌을것이 아니겠는가.

시간을 다투는 드바쁜 모내기철에 잠시나마 뜨락또르가 가동을 멈추었다는 이 사실은 결코 스쳐지날수 없는 일이였다. 그는 자기 사업의 빈구석을 찾아보았고 귀맛좋게 들려오는 평가에 순간이나마 만족하였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교훈이 컸다.

지배인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각 농장의 일군들은 물론 기계화초병들과도 무릎을 마주하며 가동률을 최대로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대책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리고 이동수리조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된것이 있었다.

이동수리조원들이 언제나 주인된 립장에서 농장원들과 한전호에 서야 한다는것, 그래야 농기계들의 가동률보장을 더욱 책임적으로 할수 있으며 누구나 이 사업에 뼈심을 들이게 된다는것이였다.

모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큰 여운을 남겼다. 특히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에 바치가는 우리의 순결한 량심이 협동벌마다에서 울려퍼지는 농기계들의 고르로운 동음속에 그대로 비끼게 된다고 한 지배인의 말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동수리조원들의 일본새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졌다.

제기된 고장퇴치에만 원심을 쓰던 현상이 근본적으로 극복되였다.

포전작업을 다그치는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에서 사소한 부족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누구나 애썼다.

그만큼 들끓는 전야마다에서 농기계들의 동음은 더욱 높이 울려퍼졌다.

성과가 오를수록 작업소의 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분발해나섰다. 모내기전투현장들을 발이 닳도록 돌아보며 이동수리조원들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풀어주기 위해 만심을 지고 뛰여다녔다.

농기계들의 우렁찬 동음으로 모내기전투승리의 전격로를 열어제끼자, 모두가 이런 각오를 안고 만가동보장을 위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는 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군안의 협동벌마다에서는 기계화의 정다운 동음이 쉬임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박 영 진

3면에서 계속

총련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고 전반적교육의 질을 크게 제고하며 교수와 과외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을 유능한 민족인재로 육성하는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갈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동포학부모들의 지향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조기영어교육의 실효를 더욱 높이고 교육의 ICT화와 전자교과서도입을 2022학년도까지 완료할것입니다.

민족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오늘 보다 많은 재일동포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받아들여 그들을 어엿한 민족인재로 키우는것은 총련이 지닌 중요한 임무이며 우리만이 책임적으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총련본부와 학구들에 꾸려진 민족교육대책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학생인입사업을 년간 힘있게 조직하며 초중급학교들에 유치반을 병설하고 2살보육을 보다 확충함으로써 제24기에 학생수증가의 새로운 흐름새를 펼쳐나갈것입니다.

또한 총련본부와 지부, 교육회는 우리 학교를 돕는 사업에서 창조된 앞선 단위의 경험들을 살려 《학교사랑 한구운동》을 비롯한 학교지원사업을 힘차게 짜고들것입니다.

조선대학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립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학생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골간으로,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움으로써 공화국의 해외교포대학으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더 크게 떨쳐나갈것입니다.

(2)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운동을 광범히 벌리며 민족문화사업과 군중체육활동을 크게 앙양시켜 동포사회가 민족정서와 애국열의로 들끓도록 할것입니다.

총련의 각급 기관과 단체들에서는 동포들속에서 우리 말과 민족문화를 배우는 운동을 문화교실과 청년학교, 토요아동교실 등을 통하여 더욱 왕성히 벌릴것입니다.

문예동은 오늘의 벅찬 시대를 반영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고 어머니조국을 우러러 애족애국의 한길로 줄달음치는 동포들의 참모습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여 민족문화운동을 적극 추동해나갈것입니다.

금강산가극단은 주체적해외동포예술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하며 지방카무단은 기동예술선동대로서의 역할을 한층 높임으로써 동포사회에서 우리 노래, 민족의 장단과 춤을 배우고 즐기는 활동을 확대시켜나갈것입니다.

체련은 군중체육활동의 폭을 넓히고 더욱 활기있게 벌려 이를 공간으로 더 많은 동포군중을 묶어세우며 체육경기들을 통하여 조국의 영예, 민족의 영예를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입니다.

4) 총련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창창한 앞날을 떠밀어나갈 애족애국운동의 계승자들과 새 세대 인재육성에 각별한 힘을 넣을것입니다.

우리는 새 세대 단체 일군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핵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것입니다.

조청은 동맹원들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지부와 반조직을 활성화하며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대중운동을 왕성히 벌림으로써 광범한 동포청년들을 조청조직에 더 많이 묶어세울것입니다.

청상회는 1 000여명의 역원대렬을 튼튼히 다지고 지방과 지역조직들을 강화함으로써 회원대렬을 확대하고 민족교육지원을 비롯한 총련운동전반에서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나갈것입니다.

청상회는 오는 9월 효고에서 가지는 《우리 민족포럼 2018》을 크게 성공시키며 해마다 조직하는 민족포럼과 여러 경제부회와 생활방조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자기 활동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울것입니다.

류학동의 지방본부와 지부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많은 동포류학생들속에 민족성과 애족애국의 마음을 심어주어 동맹대렬을 확대할것입니다.

총련은 강성번영하는 동포사회를 위하여 조선대학교의 학부와 연구원, 조국의 대학들의 통신교육체계 등을 통한 인재육성에 힘을 넣을것입니다.

또한 이미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와 언론계, 예술과 체육의 각 부문들에서 활동하고있거나 지금 한창 자질향상과 기능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새 세대 동포인재들을 적극 도와주며 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여러 분야와 조국과의 련계밑에 국제적인 활동마당들에 진출하여 명성을 떨치도록 할것입니다.

5) 총련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흐름과 조국의 경제건설대진군에 보조를 맞추어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할것입니다.

(1) 총련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사업에 특색있게 기여할것입니다.

총련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외세와 반통일보수세력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며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으로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거족적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입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를 강화하고 해외의 통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며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는 물론 각계각층과의 련대를 강화해나감으로써 북과 남, 해외가 함께 하는 민족공동행사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서 책임적인 역할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총련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이 깃들어있는 4월과 6월, 10월을 조국통일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에서 이 기간에 기념모임, 강연회, 연구토론회 등 다양한 조국통일행사들을 조직하여 모든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누구나가 다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통일애국운동에 나서도록 할것입니다.

또한 래년에 맞이하는 3.1인민봉기 100돐과 2020년에 맞이하게 되는 6.15공동선언발표 20돐 그리고 조국해방 75돐을 내다보면서 모든 재일동포들이 단체소속과 국적의 차이를 불문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위해 떨쳐나서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민단》중앙이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진 오늘의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에 따라 동포사회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2) 총련은 일본인민들과의 친선과 련대를 넓히고 조일평양선언에 따른 조일국교정상화의 실현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기 위해 대외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벌려나갈것입니다.

총련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계승하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 선린우호의 국제관계수립을 위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선전전, 여론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할것입니다.

또한 유리하게 전변되는 대외적환경에 맞게 일본의 정계, 언론계, 사회계를 비롯한 각계에 친조세력을 폭넓게 꾸리고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획기적으로 늘어나가며 공화국방문을 비롯한 조일사이의 교류사업을 활성화할것입니다.

총련은 지역밀착의 대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본각지에서 다양한 조일우호친선운동과 민족교육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생활을 옹호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특히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친선교류사업과 대외행사들을 활발히 벌릴것입니다.

(3) 총련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조국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릴것입니다.

조국의 번영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은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총련은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동포들의 열화같은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있는 힘, 있는 지혜를 그 어느때보다 더 크게 발동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애국의 흔적을 새기도록 할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총련 제24차 전체대회 대의원들은 주체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참으로 벅찬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커다란 믿음과 동포들의 기대속에 재일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책임져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나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주체위업과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정을 힘으로 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대의원들이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을 호소합니다.

함흥버섯공장에서

새로운 버섯기질을 리용하여 생산량을 확대

함흥버섯공장에서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산장성의 지름길을 열어가고있다.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새로운 기질을 리용하여 버섯생산량을 1.3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버섯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종업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기술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은 주변공장에서 나오는 폐설물로 생산성이 높은 버섯기질을 만들 기발한 착상을 내놓고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은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구체적인 분석과 실험을 통하여 누에고치를 써낸 물에 들어있는 조단백질함량이면 얼마든지 버섯기질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버섯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원료작업반의 종업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기질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분쇄기, 제분기 등 설비들에 만가동을 걸어 질좋은 기질원료들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종균작업반에서 떨균로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접종과 배양에서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매일 계획을 120%이상 수행하고있으며 재배작업반 등에서도 온습도보장과 기질관리,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버섯을 하나같이 실하게 키워내고있다.

새 기질이 개발도입됨으로써 원단위소비기준을 대폭 낮추고 버섯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되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공장의 종업원들은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로씨야청년조직련합대표단 귀국

그리고리 베루슈꼬브 로씨야청소년련합민족리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청년조직련합대표단이 28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박명진동지와 세르게이 찌호미로브 주조로씨야련방대사관 참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과학자들에 대한 믿음은 기적창조의 원동력

강계의학대학에서 누에치기소독약 《잠홍》을 연구개발한 과정을 놓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애로를 풀어주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여야 합니다.》

최근년간 잠업부문에서는 강계의학대학에서 개발한 누에치기소독약 《잠홍》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도입되고있다.

100%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로 만든 이 소독약은 일찌기 자강도가 잘살려면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가 지난 3년동안 해마다 누에고치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훨이어 돌파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잠홍》은 누에소독제(《잠홍1》호), 잠기구소독제(《잠홍2》호), 누에칸공기소독제(《잠홍3》호)로 되여있다.

하다면 자강도에서 값비싼 수입소독약을 완전히 밀어낸 이 효능높은 누에치기소독약은 어떻게 연구개발되였는가.

얼마전에 진행된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이 성과제안을 가지고 참가하였던 강계의학대학 약학부 학부장 박사 부교수 조광혁동무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소독약연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던 2015년 11월말에 진행되였다는 현장협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남긴 여운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도당책임일군의 참가밑에 잠기구공장에서 열린 도내 잠업부문과 련관부문 책임일군들의 현장협의회는 시작부터 평평한 분위기였다.

다음해에도 도에서 다른 나라의 값비싼 누에치기소독약을 사들여올것인가 아니면 채 완성되지 않은 강계의학대학의 소독약을 믿고 수입을 그만둘것인가.

밤이 깊어가도 심중한 론의는 좀처럼 끝날줄 몰랐다. 어느 일군도 쉽게 결론을 내릴수가 없었다.

사실 환경이나 날씨조건 등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누에치기는 매 공정마다에서 누에나 누에칸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잘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누에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데로부터 여러가지 소독약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도에서는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누에고치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당위원회에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누에치기소독약을 새로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약물개발능력이 우수하고 약학과 관련한 전문학과를 가진 강계의학대학에 주었고 대학에서는 강좌장들인 윤철우, 김병찬동무들과 연구사 윤광복동무를 비롯한 능력있는 교원, 연구사들로 연구집단을 뭇고 그 책임을 약학부 학부장에게 맡겼던것이다.

협의회에는 소독약연구집단 성원들도 참가하였다.

격렬한 론의과정을 지켜보는 조광혁학부장의 눈앞에는 소독약개발의 나날이 언듯언듯 흘러갔다.

잠학과 의학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일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 일명 3차산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작업대상과 공정이 복잡한 잠업부문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의학대학에서 누에치기소독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지만 당조직과 일군들은 과학자들을 굳게 믿었다. 과학기술만이 살길이라는 억척의 신념이 이들로 하여금 도자체의 과학력량에 전적인 기대를 주지없이 걸게 하였던것이다. 수시로 연구현장에 내려와 길린 문제를 풀어주고 기어이 소독약을 우리식으로 개발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돌파구를 열자고 고무해주는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 대학책임일군들…

귀중한 실험설비들과 시약들은 물론 점점의 겨울나이용석한이며 김장용남새 그리고 살림집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사업과 가정생활의 구석구석에 일군들의 눈길이 미치였다. 연구도입현장으로 정해진 잠기구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도 한마음한뜻이 되여 과학자들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다.

그 진정어린 믿음과 기대에서 커다란 힘과 고무를 받으며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쌍그리 바쳐나갔다.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노력으로 생소한 잠업의 세계를 파헤치면서 성공에로의 생눈길을 한치한치 열어나갔다. 연구사업은 나날이 진척되여갔다. 잠업부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연구방식을 답습하지 않는 기발하고 혁신적인 연구방법론이 탐구되였다. 방대한 량의 기초실험이 짧은 기간에 끝나고 드디여 실험단계에서 성공하는 순간이 왔다.

과학자들은 용기백배하여 공업화를 위한 시험생산에 달라붙었다. 1년이상 걸려야 세울수 있다고 하던 중간생산공정이 다섯달만에 무려지고 여기에서 초기의 계획보다 5배이상에 달하는 소독약이 나왔다. 하지만 역시 새것의 탄생은 진통을 겪는법이다.

누에치기에는 수입소독약이 없으면 안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굳어진 사고방식이 제일 문제였다. 게다가 처음 생산되여 현장에 나간 새 소독약들에서 사용상결함이 제기되여 신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하지만 그때에도 당조직과 일군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마침내 소독약연구는 마감단계에 이르게 되였던것이다. …

(그렇다고 아직 채 완성되지도 않은 소독약을 전면도입하였다가 만약 실패하는 경우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그 후과는 돌이킬수 없는것이였다. 학부장은 저도모르게 머리를 저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부장선생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도당책임일군의 이 말에 생각에서 깨여난 학부장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까지는… 전면도입은 하지 말고 몇개 군에만 먼저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일군들이 그의 의견에 동감하였다.

실망인가 아니 그보다는 강렬한 호소가 담긴 도당책임일군의 눈길이 자기에게 와닿는 순간 학부장은 더 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자기딴에는 과학연구결과에 대한 책임감때문이라고 위안을 가질수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소심성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모르게 들었던것이다.

그때였다.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도당책임일군의 목소리가 협의회장에 흘러였다.

《오늘 우리가 어기서 주춤하면 우리 소독약이 나오지 못합니다. 도에서는 과학자들, 다름아닌 동무들을 믿고 대담하게 수입을 완전차단할 결심입니다. 모든 책임은 도당위원회가 지겠습니다.》

무엇인가 쿵— 하는 충격이 과학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렇건만 자기의 한마디 대답에 도의 한해잠업이 결딴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하여 학부장은 끝끝내 전면도입을 찬성하지 못하였다.

협의회는 일시 중지되였다.

이 일로 하여 학부장은 자기들의 연구사업을 힘을 다해 떠밀어주던 대학책임일군들앞에도 떳떳이 나설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부터 과학자들은 저도모르게 전에 없던 든든한 배심과 하늘을 찌를것만 같은 정신적앙양을 온몸으로 느끼였다.

(다음해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어이 소독약을 완성해야 한다. 무조건! 반드시!)

남은 기간은 기껏해서 한달, 그야말로 결사전이 벌어졌다. 그 나날에 과학자들이 솔고웃으며 맞고보낸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을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도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값비싼 소독약수입이 완전히 차단되고 우리의 소독약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대담한 조치가 취해졌다. 원료보장과 생산, 공급에 대한 빈틈없는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소독약생산과 공급, 기술도입을 위한 지도소조가 무어지고 새 소독약도입과 관련한 기술강의, 보여주기사업 등이 수차에 걸쳐 진행되는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도적인 규모에서 작전되고 집행 및 총화되였다.

과학자들에 대한 당조직과 일군들의 확고한 믿음은 그야말로 소독약개발성공의 지름길을 비쳐주는 등불이 되였다. 성공의 순간을 앞당기는 하나하나의 디딤돌이 되였다.

마침내 우리 식의 효능높은 새 소독약들이 완성되였다. 습식법으로 진행되던 누에소독제의 생산공정이 건식법으로 갱신되여 생산성이 3배로 오르고 전력소비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생산원가가 절반으로 낮아졌다. 액체형태로 생산되던 잠기구소독제는 고체형태로 생산되여 수송 및 리용효과성이 훨씬 높아지고 보관기일이 1년이상으로 늘어났다. 사용방법이 불편하여 잘 쓰이지 않던 누에칸공기소독제도 누에고치생산자들이 호평하고 애용하는 제품으로 완성되였다. 수입소독약들에 비하여 값이 눅고 효과성이 높으면서도 쓰기 편리할뿐아니라 유해가스방출량도 적은 이 소독약은 자강도의 지경을 벗어나 전국의 누에고치생산단위들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자강도는 잠업을 하여야 잘살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개발한 누에치기소독약을 《잠홍》이라고 명명하였다. …

《모두가 우리를 보고 큰일을 했다고 축하해주고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소독약의 진짜 개발자들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진짜배기 1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해주군 합니다.》

우리는 조광혁학부장의 이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였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마련이다.

우리 과학자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떠밀어주자. 그러면 기적을 창조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고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제일척후전선인 과학기술전선을 지켜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뒤에는 이렇듯 훌륭하고 미더운 일군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에 꽉 차올랐다.

본사기자 려명희

새로운 큰알뇨소비료성형기가 나오기까지

농업연구원에서

지금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연구원의 과학자들이 새로 연구제작한 큰알뇨소비료성형기가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 큰알뇨소비료성형기는 알크기가 2mm이하인 일반뇨소비료를 심층시비하는데 알맞도록 직경이 17.5mm정도 되는 삼구비모양의 큰알로 만드는 홈로라암착식알비료성형기이다.

새로운 알비료성형기를 연구제작한 주인공들은 농업연구원 심장 조철만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 알비료를 만들어주면 비료의 효과성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조철만심장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새로운 형식의 알비료성형기를 만들 결심을 한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이였다.

최신농업과학기술자료들을 연구조사해나가면 과학자들은 큰알뇨소비료성형기와 관련한 자료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일반뇨소비료를 질층에 그냥 주는 방법에 비하여 시비량을 줄이면서도 소출을 높일수 있고 비료류실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있는 큰알뇨소심층시비기술이 과학자들의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이 기술에서 핵심이 바로 성능높은 큰알뇨소비료성형기였다.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실천에서도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러한 알비료성형기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촌에 알비료를 만들어주면 비료의 효과성을 훨씬 높이고 비료의 량비도 많이 없앨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에서 알비료성형기를 만들어 적극 리용할데 대하여 여러차례나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난 시기 농업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알비료성형기들을 만들어 리용해왔다. 하지만 그 기계들은 대부분 진흙을 점결제로 리용하여 알비료를 만들게 되여있었기때문에 생산되는 알비료제품은 건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물동량도 많아질뿐아니라 쉽게 부스러져 생산과 보관, 운반 그리고 리용에서 적지 않은 부족점을 가지고있었다. 최근년간에는 점결제를 쓰지 않는 알비료성형기가 나와 리용되고있지만 그 가동률과 제품의 실수률이 높지 못한것으로 하여 대량의 알비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농촌에 알비료를 만들어주면 비료의 효과성을 훨씬 높이고 비료의 량비도 많이 없앨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에서 알비료성형기를 만들어 적극 리용할데 대하여 여러차례나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난 시기 농업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알비료성형기들을 만들어 리용해왔다. 하지만 그 기계들은 대부분 진흙을 점결제로 리용하여 알비료를 만들게 되여있었기때문에 생산되는 알비료제품은 건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물동량도 많아질뿐아니라 쉽게 부스러져 생산과 보관, 운반 그리고 리용에서 적지 않은 부족점을 가지고있었다. 최근년간에는 점결제를 쓰지 않는 알비료성형기가 나와 리용되고있지만 그 가동률과 제품의 실수률이 높지 못한것으로 하여 대량의 알비료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던 과학자들은 주저없이 결심을 내리였다.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새로운 형식의 성능높은 알비료성형기를 우리 식으로 기어이 만들어내자!)

농업연구원의 책임일군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나섰다.

사실 그들에게 알비료성형기를 만들라고 과업을 준 사람도 없었고 만들지 않았다고 책임을 추궁할 사람도 없었다. 자료를 해당 연구집단에 넘겨주기만 하여도 임무는 끝났다고 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스스로 험한 길에 들어섰다. 바로 그 길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업부문에 주신 유훈을 관철하는 길이기에 자기들이 택한 탐구의 생눈길에서 과학자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실장 조철만동무와 연구사들인 림혜룡, 리용식동무들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큰알뇨소비료성형기를 설계하였다. 이들은 농업연구원 책임일군들의 지도방조밑에 지체없이 어느 한 공장으로 달려나갔다.

이 큰알뇨소비료성형기가 새로 연구제작됨으로써 농촌에서 알비료를 만들어씰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좋은 전망이 열리였다.

지금 농업부문에서는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창조적협조밑에 이 큰알뇨소비료성형기를 각지의 농촌들에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도입일반화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그 일환으로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에 이 알비료성형기를 내놓았는데 참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

이렇듯 현실적의의가 큰 새로운 과학기술성과가 나온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기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안고 사는 훌륭하고 진실한 애국충정의 인간들에 대하여 알게 된것이다.

우리의 주인공들인 농업연구원의 과학자들, 이들이 자기들보다 더 먼저 내세우던 농업연구원의 책임일군들이며 현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새로운 큰알뇨소비료성형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 식으로 태여났다.

본사기자

◎ 발 명 소 식 ◎

양어못의 버림물 정화 및 재순환공정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 부원 림지원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내놓은 이 발명제안은 양어못의 버림물을 정화하고 재순환시키는 공정에 관한것이다.

이 버림물정화 및 재순환공정은 침전지들에서 부유물질과 배설물을 1차적으로 침전시키고 침전물을 처리하는 공정과 가압려과기에서 상등액을 려과하는 공정, 려과수를 랑크에 저장하는 공정, 소독액발생기와 소독액주입계통에 의하여 려과수를 산화 및 소독하는 공정, 정화된 물을 급수랑크에로 압송하는 공정 그리고 물재순환공정에 대한 감시조종체계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물재순환공정감시조종체계는 침전지와 집수랑크에 설치된 준위수감부, 감량뽐프출구와 가압려과기로 들어가는 관로들에 설치된 류량계, 정화랑크에 설치된 준위수감부, 폐하계, 용존산소계 등으로 구성되여있으며 계기들로부터 신호를 받아 측정값을 현시하고 물재순환공정을 조종한다.

과학자들은 이 공정을 발명하면서 과학실험설비공장의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수입에 의존하던 가압려과기와 소독액발생기를 자체로 설계제작하였다. 어느 한 메기공장에 도입된 실리있는 이 발명제안은 당의 뜻대로 양어부문에서 물질약형양어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원격시험관리체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과장 박사 부교수 김장학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발명한 이 제안은 콤퓨터망을 통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얼굴인식, 콤퓨터화면감시, 원격접속상태에 대한 검출, 시험장환경감시 등을 실현한 원격시험관리체계에 관한것이다.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실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열정이 깃든 이 체계는 USB촬영기에 의한 시험장환경감시, 얼굴인식에 의한 신분확인, 콤퓨터화면감시 등에 의한 시험감시체계와 시험장감시체계, 시험관리홈페지, 시험관리봉사체계로 구성되여있다.

여기서 시험감시체계는 한대의 콤퓨터에 1~4대의 USB촬영기와 마이크, 고성기를 련결하고 USB촬영기들을 실시간 공유할수 있는 원격시험관리봉사프로그람과 시험장감시프로그람으로 이루어져있다.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이 발명제안은 원격교육을 진행하는 모든 교육단위들에 도입할수 있다.

이동식벼종합탈곡기

농업성 농기계연구소 실장 최희정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발명한 이 제안은 포전을 포함한 임의의 장소에서 발동기 또는 전동기를 리용하여 벼탈곡작업을 진행할수 있는 이동식벼종합탈곡기에 관한것이다.

이 종합탈곡기는 벼탈곡장치와 북데기탈곡장치의 아래에 나란히 설치된 2개의 정선장치, 그 출구와 북데기탈곡장치의 입구부분을 련결하는 되돌이통로, 정선장치의 아래에 설치된 뽀림날개를 가진 스크류운반장치, 뽀림날개덮개에 관로로 련결된 회리통식날알분리장치 그리고 배풍장치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이동식벼종합탈곡기에서 동력전달체계는 발동기 또는 전동기와 규격화된 V형피대전동장치들로 이루어져있다.

성능이 같은 여러 탈곡기들에 비해볼 때 제작원가가 비교적 낮고 동력소비가 적은 이 이동식벼종합탈곡기와 관련한 발명제안은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낟알의 허실을 막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본사기자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에서 물고기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기관차체육단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널리 리용되고있는 식용화초

식용화초는 관상용으로 리용되는 화초들가운데서 꽃이나 열매, 잎, 뿌리를 특별한 가공처리가 없이 먹을수 있는 화초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꽃에는 각종 아미노산과 당질, 기름질과 광물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과 같은 생리활성물질들도 많이 들어있어 보건기능성식료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 실례로 여러 나라들에서 꺾은꽃으로 가장 많이 리용되는 국화꽃에는 100g당 당질과 단백질, 기름질이 각각 4.8g, 1.9g, 0.9g 들어있으며 만수국과 금전화꽃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색소물질의 80%는 최근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눈질병예방치료에 효과가 좋은것으로 평가되고있는 루테인이라고 한다. 해당화꽃과 열매, 원추리와 알로에 등의 잎에도 어러가지 병의 치료예방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초가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원추리, 참나리, 련꽃 등 많은 화초들이 식생활에 리용되였으며 가을철에는 국화꽃잎을 넣은 떡을 먹는 등 꽃을 음식물로 리용하는 풍속이 있다.

식용화초는 그자체의 색과 향기, 맛으로 하여 색소나 향신료와 같은 첨가제를 쓰지 않고도 특유한 풍미를 갖춘 맛좋은 음식물을 만들수 있다는데로부터 곤충식료품, 바다나물식료품에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류행식료품으로 등장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꽃으로 만든 기능성식료품들은 수백가지나 되며 특히 꽃차는 고유한 꽃향기와 산듯한 맛으로 하여 점차 차나 커피를 밀어내고있다고 한다.

현재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과 서유럽나라들에서는 식용화초의 재배와 그를 원료로 하는 식료품의 생산 및 봉사, 그 기술개발 및 보급이 이미 하나의 완전한 고리로 련결되여 경제적실리가 크고 전망이 매우 좋은 식용화초산업이 형성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순결한 량심과 헌신으로 지켜온 초소

염주군인민병원 간호원 고수화, 권치화동무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염주군인민병원에 대한 위재과정에 이곳 일군으로부터 책임성높고 성실한 두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이어온 그들의 간호원생활에 대하여 전해들으며 우리는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보람찬 삶이란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

실험실간호원으로 40여년간을 일해오는 고수화동무에게는 언제나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사는 지론이 있다.

위생복의 흰빛은 참된 보건일군의 깨끗한 마음이며 위생복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입을 자격이 있다는것이다.

사심과 공명이 없고 명예와 보수를 모르며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보건일군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는 고수화동무.

정성이라는 말의 참뜻을 눈이나 입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익혀둔 그였기에 40여년간 사랑으로 수놓아온 헌신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올수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어린 자식들의 밥상에 죽그릇밖에 놓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서도 흔연히 현미경앞에 마주앉군 했던 그였다.

온밤 고열속에 시달리다가도 아침이면 출근부에 자기의 이름을 또박또박 새기고 위생복을 정히 입군 한 그의 순결한 마음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심을 몰랐다.

10여년전 지칠세라 곁에서 힘을 주고 의지가 되여주던 남편이 뜻밖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머리속에는 세 딸의 어머니인 내가 간호원생활을 계속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지뭇게 갈마들었다.

그러면 어느날 사사로운 생각에 잠겨 엄격한 시간준수를 요구하는 실험검사공정에서 몇분간의 시간적공백을 무심히 넘기는 자신을 발견한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당의 은정속에 남다른 영광을 누려온 나날들을 더듬으며 그는 보건일군의 책임과 본분을 잠시나마 잊을번 했던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며칠후 유가족에게 수여하는 남편의 애국렬사증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에 온넋을 바쳐갈 결의를 다시한번 굳게 가다듬었다.

삶의 순간순간을 뜨거운 인간애와 지극한 정성으로 빛내여온 참된 보건일군의 성실한 한생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자기 직무에 끝없이 충실할것을 절절히 당부하고있다.

나는 화선간호원의 딸이다

3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수술장간호원으로 일해오는 권치화동무의 가슴속에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쳐 동지들의 생명을 구원한 화선간호원들의 참된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간호원이였던 그의 어머니는 권치화동무에게 화선간호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면서 꼭 안영애영웅과 같은 당의 참된 딸이 되라고 당부하군 하였다고 한다.

어머니의 당부대로 그는 간호원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배치된 후 어렵고 힘든 수술장에서 일하게 해줄것을 청원하였다고 한다.

오랜 기간 수술장간호원으로 일하면서 그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자기의 피부를 이식해주었으며 피를 넣어주었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수술보장을 하고나면 온몸이 쑤시고 무릎이 저려와 집에 갈 기력조차 없을 때가 많았고 다음날 수술준비를 위해 밤을 지새운적은 셀수 없이 많았다.

권치화동무의 깨끗한 마음을 전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다음날 수술준비를 위해 혼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던 그는 새벽녘에 소독기의 압력계를 들여다보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잠시후 눈을 뜬 그는 자기가 소독시간을 표준조작법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소독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느라면 래일 운동회에는 꼭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제일먼저 가겠다고 한 딸애와의 약속을 지킬수 없었다.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해주는 밥을 더 많이 먹는 아이는 학교에 나타에 없다고 투정을 부리던 딸애의 얼굴을 그려보는 그의 심정은 착잡하였다.

제꺽 들어가 음식준비만이라도 해주고 나오리라 총총히 걸음을 옮겨 집에 들어서던 그의 눈에 벽에 걸려있는 포연에 절은 어머니의 군복이 보였다.

순간 그는 어머니의 당부를 잠시나마 어겼던 했던 자신을 질책하며 조용히 문을 닫고 병원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병원으로 가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도 이제 크게 되면 어머니를 리해하게 될게다.)

세월의 흐름속에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지만 언제나 화선간호원의 딸답게 살려는 권치화동무의 맹세는 변함이 없었다.

누군가가 간호원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딸이 간호원학교를 지망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자기의 직업을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딸의 가슴속에 참된 보건일군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졌으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대를 이어 걸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게 하였던것이다.

* *

고수화, 권치화동무들의 지극한 정성에 발들려 건강을 되찾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들을 간호원어머니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살고 인민의 믿음속에 일하며 인민의 사랑속에 한생을 빛내이는 참된 보건일군이 되려는것은 이들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간직해온 신념이다.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진정 이들처럼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지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불태워온 그 한생이 다름아닌 위훈이고 지워지지 않는 애국의 자욱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성룡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산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1975년-2015년에 미국에서 20%의 최하층주민들의 총수입액은 전국의 가정들의 총수입액의 3.1%로 떨어졌으며 제일 부유한 계층의 수입액은 51.1%로 뛰여올랐다.

한편 영국에서는 10%의 부자들의 수입이 이 나라 자산의 54%를 차지하며 20%의 최하층주민들의 수입은 0.8%밖에 안된다고 한다.

자료가 보여주듯이 이 나라들에서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고있는것은 자본주의사회 그자체가 돈많은자들을 절대시하며 그들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극히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사회이기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은 착취사회의 산물이다.

이것은 착취사회의 발생발전과 운명을 같이하여왔다.

노예사회에서 노예주들은 노예들이 만든 생산물을 독차지하고 노예들을 소나 말과 같이 채찍으로 부려먹으면서 특세를 부리였다.

봉건사회에서는 봉건령주들이 농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수탈함으로써 부귀영화를 누리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국가주권과 나라의 경제명맥을 완전히 틀어쥐고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악착하게 하여 얻은 재부로 무위도식하면서 부패하고 사치한 생활을 한다.

또한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무권리와 빈궁을 강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치적, 경제적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가 선행한 착취사회에서보다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이 보다 심화되는것은 생산수단이 전사회적범위에서 사유화되어있기때문이다.

착취사회는 사적소유제에 기초하고있다. 사적소유제는 유산자와 무산자, 빈부를 산생시키는 기본근원이다.

이 사적소유제에 의해 착취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출현하게 되였고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생산수단을 극소수의 독점재벌들이 틀어쥐고있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은 특권적인 경제적지위를 악용하여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을 자본의 멍에로 얽매여놓고 착취한다.

독점적고률리윤을 취득할수록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은 더욱 부유해진다.

그들은 더 많은 리윤을 얻고 재부를 늘이기 위해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내고있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차지하고있는 자본가들은 나날이 비대해지고 잘살게 된다.

이와는 달리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적생산물의 직접적생산자이고 물질적부의 창조자이기는 하지만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물질적생산의 수단으로, 자본의 노예로 취급당한다.

자기 로동의 결과만큼 사회적생산물을 차지하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것은 또한 반동지배층의 반인민적정책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반동지배층은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자들이다. 때문에 모든 정책은 그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정립되고 집행된다. 즉 자본주의사회의 정책과 정치는 부유층에게 최대한의 리익을 주며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치부를 실현시키는데 복종되고있다.

독점재벌들이 권력을 쥐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가 실시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독점재벌들에게는 특권, 특혜를 제공하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착취행위를 묵인, 비호해주면서도 근로대중에게서는 각종 명목으로 돈주머니를 털어내는 반동지배층의 불공평하고 반인민적인 정치로 한줌도 안되는 특권층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에 근로대중은 더욱 빈곤해지고있다.

한 외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은적이 있다.

《뉴욕시의 14구역과 16구역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14구역은 미국경제의 명맥을 쥐고있는 금융계거물들이 살며 패락을 즐기는 곳이다. 부자들은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값비싼 식당들에 매일밤 돈을 퍼붓고있다.

그러나 빈곤층이 살고있는 16구역은 강력범죄가 판을 치는 무시운 곳이다. 이곳의 방랑자들은 강도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형벌로 감옥에서 죄수밥을 정상적으로 먹는것을 호화생활로 간주하고있다.》

미국의 빈부가 낳은 두 세계의 대조적인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글이다.

오늘날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는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심화되여가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매개 자본주의나라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지배하였다면 이제 와서는 세계가 부유한 자본주의나라들과 가난한 발전도상나라들로 갈라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간의 빈부격차가 커가고있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신식민주의적착취와 략탈에 있다.

언제인가 미국의 한 잡지도 《서방공업국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피를 빨아 번영하고있다.》고 폭로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야말로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산물이며 자본주의사회가 존재하는 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절대로 없어질수 없다.

림 원

대화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로 마련된 긍정적인 기류에 역행하는 언동을 계속 일삼고있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방성과 백악관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방위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느니, 《년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은 계속 진행될것이며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군부에서도 오는 8월에 진행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벌써부터 부산을 피우고있다.

한편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의 입에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선택안이 배제된적은 없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를 담보하는 일은 없을것이다.》는 회담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심히 온당치 못한 소리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우리를 자극하는 이러한 도발적언동들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보장이 오늘처럼 절실한 문제로 나선 때는 없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조미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갈수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려놓는 연습들은 례외없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쟁도발을 가상한것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다.

조미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고 대화를 향해 마주 가고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을 불아오는 주되는 화근인 합동군사연습을 굳이 벌려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교전쌍방이 협상을 선포하면 군사행동을 자제하는것은 국제적관례이다.

우리 공화국에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가하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면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 모든것이 다 원래상태로 돌아가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가 미국에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는것은 연습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백해무익하기때문이다.

현시기 합동군사연습문제는 미국이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된다.

세상사람들은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고집하는것은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조선과 화해하는데 흥미를 가지고있지 않기때문이라고 평하고있다.

남의 집 문앞에서 위험한 불장난소동을 벌려놓아도 제 집에는 불티 한점 날아올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관념은 이제는 구시대적인것으로 되였다.

미국이 남조선과 결탁하여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벌려며 우리를 위협해나선다면 미국의 안전도 그만큼 엄중한 위험에 빠져들게 된다.

미국이 회담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상대를 힘으로 위협공갈하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자극하는 언동을 걷어치우지 않는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안전보장문제는 언제 가도 해소될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자기에게 리로운것이 어떤것인가를 똑바로 구별하고 처신할 때이다.

리 현 도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회의 진행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정치결의 채택

세계민주청년련맹 총리사회회의가 24일과 25일 네팔의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비롯한 38개 나라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19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후 련맹의 활동정형과 각국의 정치정세통보, 2018년 활동계획 등 안건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발언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독점적리윤추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일치단결하여 지배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 전쟁책동에 맞서 견결히 싸워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정치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제안들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하면서 세계민주청년련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결단에 의해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찬동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또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기운 고조

남조선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찬동하면서 그의 철저한 리행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활동들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인사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중민주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광심수후원회 등 각계 단체 성원들이 참가하는 민족자주통일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판문점선언지지, 리행》, 《대북적대정책폐기》, 《조미평화협정체결》, 미국과의 《동맹해체》 등의 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자주통일의지를 다지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이은 통일의 새로운 강령적과표이며 오랜 분렬과 대결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통일의 리정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금의 정세가 지난 70여년동안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고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온 외세에 대한 규탄과 반대의 함성을 더 크게 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외세의 반통일적인 간섭과 전횡을 완전히 청산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민족자주선언이 채택되였다.

남조선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따라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장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라고 쓴 선전물들을 든 사람들로 차있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통동의 통일강령인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 리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밝은 서광을 비쳐준 선언을 이 땅우에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자고 호소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론평을 발표하여 판문점선언의 적극적인 리행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론평에서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리행하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선언의 제반 사항들이 신속히 리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진 향

민주로총 최저임금개악에 맞서 총파업 선포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25일 민주로총이 서울에 있는 단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저임금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총파업을 선포하였다.

발언자들은 《국회》환경로동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개선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론의해야 한다는 로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최저임금법개악으로 기업들은 기뻐하겠지만 자그마한 희망마저 빼앗긴 로동자들은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고 그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그들은 《정부》가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것은 로동자들과 한 공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폭거라고 규탄하였다.

이어 민주로총은 28일부터 최저임금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단체는 로동존중세상을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한국로총》도 립장문을 통해 《국회》 환경로동위원회의 결정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속된 로동자위원의 철수를 선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매국협정의 페기를 위한 대중적투쟁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대한 민심의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페기를 위한 투쟁이 갈수록 적극화되고있다.

지난 15일 50여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페기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간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판문점선언에 조선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고 밝혀지는것만큼 일본과의 군사협정도 페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을 불러오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페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 협정의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8월말까지 협정페기를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전개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정권》와 아베입당의 범죄적공모결탁의 산물로서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반동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조선반도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다.

박근혜패당은 그 무슨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운운하며 일본반동들을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할 흉심밑에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1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강행하였다. 이것은 천하의 쌀개빠진 매국반역행위였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반동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에 대한 저들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 대해 사죄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정당화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재침의 칼날을 시퍼렇게 벼리고있다.

아베입당의 파렴치한 독도강탈책동은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리성을 잃고 헤덤비는 일본반동들이 우리 민족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얼마나 위협한 존재로 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자나깨나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는 사무라이족속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박근혜역도는 민심의 드높은 반일기운을 외면하고 그 무슨 《미래지향적인 관계》니, 《돈독한 신뢰구축》이니 하는 반역적나발을 불어대면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죄악들을 묵인해주었을뿐아니라 나중에는 일본과의 반공화국대결공조를 더한층 강화할 심산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동족대결야망에 사로잡혀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이며 철천지원쑤인 일본반동들과 서슴없이 손을 잡으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친 박근혜패당이야말로 두고두고 저주받을 가증스러운 매국반역의 무리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제2의 《을사5조약》체결로 락인하면서 《일본군국주의망령을 불러오는 위험한것》, 《일본에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미국,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말려들어 긴장격화를 초래하는 반역행위》, 《제 집안에 독사를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단죄규탄했겠는가.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대표적인 외교안보적폐》로 락인하면서 그의 페기를 요구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확약한 오늘 이러한 매국협정이 존재하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을 바라는 아시아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지향에 배치된다.

남조선인민들도 조선반도에 화해와 긴장완화의 국면이 조성되고있는 지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존재할 명분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매국협정, 전쟁협정은 반드시 페기되여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페기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남조선단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투쟁할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사회진보련대를 비롯한 8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이 평화조불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1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힘겹게 마련한 평화의 봄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였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이 북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며 조미대화에 난관을 조성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단체는 볼톤을 비롯한 강경파들도 북에 대한 제재압박공세를 강화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더이상 전쟁연습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민주의 상징인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들고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륙강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배격하였다.

얼마전 미국무성 대변인이 도미니까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것은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미국무성의 한 관리는 미국측이 이미전에 도미니까에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말데 대해 통지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면서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원칙은 국제적인 정의, 인민들의 지향, 대세의 흐름으로서 막을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준수하고 량안관계문제에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과 부르끼나 파쏘 외교관계 회복

중국과 부르끼나 파쏘가 26일 대사급외교관계를 회복함에 관한 공동뜨듸니케에 조인하였다.

공동뜨듸니케는 두 나라 정부가 주권 및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과 호상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령토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다.

앞서 24일 부르끼나 파쏘는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외무상 미국의 제재정책을 비난

로씨야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한 잡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제재를 통해 자기의 상업적리익을 추구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늘날 다방면적인 국제무역규정과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대한 무시와 일방적인 제재, 자국법의 치외법권적인 적용 등 비람심적인 경쟁요소들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리용되고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주는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의 상업적리익을 챙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에서 채택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안》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고 까밝혔다.

팔레스티나대통령 대변인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계획 규탄

팔레스티나대통령 대변인이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유대인정착촌확장계획을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정착촌들에 2 500동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할것이라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비호밑에 벌어지고있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정착촌확장책동은 《두개국가해결책》을 말살하기 위한것이라고 까밝히고 이는 지역에서 불안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성명은 국제공동체가 동부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을 국경으로 하는 독립국가창건을 위해 투쟁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시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증되는 미국의 제재, 반격의 칼을 빼든 로씨야

얼마전 로씨야국가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나라들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최종심의가 진행되였다.

현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산 농산물수입제한, 일부 미국공민들의 로씨야입국금지, 로씨야에서 미국 등 서방나라 공민들의 로동활동금지 및 제한, 미국회사들과의 협조중지, 미국 등 서방나라 비행기들의 비행자리길 봉사료금인상 등의 내용들이 법안에 반영되여있다고 하고있다.

외신들은 로씨야가 전면적인 반공격의 칼을 빼들었다고 평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 등 서방이 대로씨야제재망을 형성하고 이 나라를 압박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올해에만 해도 미국은 년초부터 대로씨야제재를 확대하였으며 그것을 합법화하였다. 결과 로씨야는 정치경제적으로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미재무성은 대로씨야제재가 망측에 다같이 후과를 미친다는것을 알면서도 주로 민간인들에게만 국한되여있던 제재명단에 로씨야정부의 주요인물들까지 포함시켰다.

루쩐대통령 공보서기와 수상, 국방상, 로스네프찌회사 사장, 저축은행 총재 등을 항시적인 감시대상으로 등록하고 그들의 구좌를 동결시켰으며 미국입국을 제한하였다.

지난 3월초 미집권자가 2014년에 실시된 대로씨야제재를 1년간 연장할데 대해 지시를 내리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제재항목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의 국채를 구매하는 로씨야인들에 대한 제재이고 둘째는 영향력있는 정치가들과 그들의 자식들, 친구, 동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독점자본가들에 한한 새로운 제재》이다. 셋째는 《인권유린행위에 책임》있는 인물들에 대한 제재이며 넷째는 국방분야에 대한 제재이다.

이것은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에 있는 로씨야기업가들의 거액의 자산을 동결시키며 외국려행과 그 자식들의 외국류학을 금지시키고 올해 국방과 정보분야에 대한 로씨야의 국제적협조공간을 압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해외에서 철도건설, 유용광물채취,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로씨야회사들에 한하여 제재를 실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로씨야와 거래를 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자국민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를 불문하고 제재를 가하고있다.

제재명단에 포함된 로씨야회사들을 제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방조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인들이 새로운 기술, 설비, 설계문건을 넘겨주는것을 금지시켰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관계없이 로씨야에 대한 투자한계를 1 000만US$로 규정해놓고 그것을 어긴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여러 나라들의 순항 및 탄도로케트개발에 협조하였다는 감투를 씌워놓고 여러개의 로씨야국방기관들에도 제재를 적용하였다.

로씨야는 모든 분야에서 《불편한》 경쟁자로 되고있는 자국을 경쟁마당에서 몰아내며 로씨야를 서서히 붕괴시키자는데 미국의 제재책동의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로씨야의 이번 조치는 철저한 보복의지의 표명으로 된다.

로씨야국가회의 의장은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400개가량의 로씨야법인과 약 200명의 로씨야공민이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다, 자국의 대응조치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제재는 로씨야에 있어서 돌발적인것이 아니며 자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대응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루쩐대통령이 법안을 비준하고 그것이 공식 발표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로미대결전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진행될것이다.

일정한 분야에만 국한되여있던 로미사이의 대결은 더욱더 확대되고있으며 나날이 그 도수가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검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지 진

일본의 나가노현에서 25일 리히터척도로 5.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6.9°, 동경 138.5° 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자연피해 확대

스리랑카에서 최근 벼락과 무더기비, 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22일현재 전국적인 사망자수는 8명으로 늘어나고 약 6 000명이 긴급소개되였으며 총피해자수는 3만 8 000명이상에 달하고있다 한다.

현지에서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열파피해

파키스탄의 카라치시에서 최근 열파가 휩쓸어 인명피해가 나고있다.

22일현재 기온이 44℃까지 올라가 65명이 열사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앞으로 1주일동안 열파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한다.

산불피해

로씨아에서 최근 산불에 의한 피해를 입고있다.

22일현재 전국적으로 45개소의 2만 3 648㏊의 면적에서 산불이 일고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아무르주의 산불면적은 1만 3 700㏊에 달한다고 한다.

열대성폭풍

소말리아의 북부해안지역들에 최근 열대성폭풍이 들이닥쳤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으로 1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80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수만명이 소개되였다.

또한 농작물과 집짐승들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하부구조가 못쓰게 되였다고 한다.

화산 또 분출

인도네시아에서 21일에 이어 24일 메라피화산이 또 분출하였다. 화산재가 6 000m높이까지 솟아져오르고 유독성가스가 루출되였다.

정부가 분화구로부터 반경 3㎞이내에서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주변지역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도록 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81084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